

믿음의 동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들과 함께 헌신해 주셔서 프랑스에서 사역한지 18년째입니다.

2006년에 파리 근교 무슬림 마을 Montreuil 교회를 섬기고 2010년에 마르세유 11구지역 생명샘교회를 개척하면서 프랑스인들과 다민족들을 섬겼던 날이 엇그저께 같은데 이젠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 은혜로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도 사모하고 찬양인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18년만에 첫 안식년을 9월부터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통해 다비드선교사님 뇌 인지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고 저희들의 영육이 더 충전되어서 다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회복과 준비의 시간이 될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함을 더 맛보기 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프랑스로 부르다고 하는 말에 고개를 가우뚱 했지만 "빨리"가 몸에 베인 저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천천히" 를 배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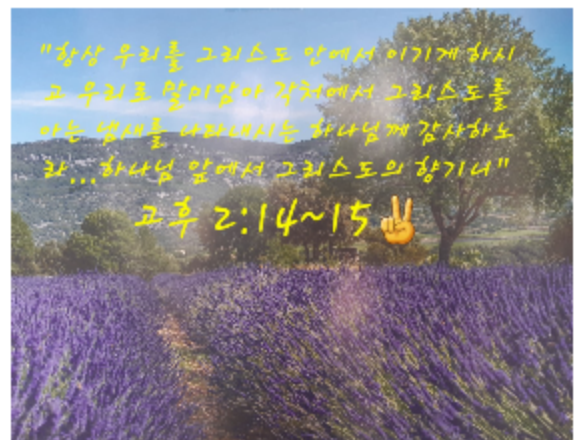
프랑스는 저를 참으로 아프게도 했지만 배움의 나라였기에 날마다 주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제목에 함께 해주세요

1. 교회 행정부분이 잘 처리되고 안식년 동안 다비드 선교사님 뇌인지부분 회복과 안식을 배우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도록
2. 저는 9월 7일 정밀검사: 8월21일 한국 방문과 10월 10일 마르세유 도착하는 이 기간 서로를 보호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소서
3.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일상이 주 사랑과 주 풍성함이 넘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 은혜이고 항상 감사드리며 온 열방위에 적당한 비, 바람, 햇빛이 내리도록
두 손 모으면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다비드+전경미 선교사 인사드립니다.